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FIFA 집행위원 '출사표'

한국축구 영향력 강화...내년 5월 선거 출마 선언

대한축구협회 정몽규(52) 회장이 국제축구계의 진출을 선언했다. 내년 5월 선출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및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에 도전한다.

정 회장은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4 AFC 16세 이하(U-16) 챔피언십 결승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촌형(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있다. 'FIFA 2019년 회장 중 한 명에 머물 것'이라고 물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른바 '엑스코(ExCo) 멤버'라고 불리는 집행위원에 선출되면 FIFA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중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만큼 국제축구계에서 영향력도 커진다.

정 회장은 "협회장이 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등을 거치며 축구와 함께 지낸 세월이 적지 않다. 쉽지 않았지만 내년 5월에 도전해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AFC에는 5명의 FIFA 집행위원이 있다. AFC 회장이 당연직 FIFA 부회장을 맡는다. 각 대륙연맹에 한 명씩 배정된 FIFA 부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일원이다. 그 외에는 3명의 FIFA 집행위원이 있고, 나머지 한 자리는 여성의 몫이다. 현재 호주인이 맡고 있는 여성 집행위원 자리는 특정 안건을 다룰 때만 FIFA 집행위원회에 참석한다.

정 회장은 내년 5월 다시 뽑아야 하는 AFC 내 3명의 FIFA 집행위원 중 한 자리를 노리고 있다. 현재 AFC 내 3명의 FIFA 집행위원은 장지룡(중국), 와라위 마쿠디(태국), 셰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바레인)다. 그러나 올해 6월 AFC는 총회에서 당연직 FIFA 부회장 자리를 AFC 회장이 맡는 것으로 정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셰이크 살만 빈 이브라힘 알 칼리파 AFC 회장은 당연직 FIFA 부회장직을 넘겨 받는다. 이전까지 당연직 FIFA 부회장을 맡았던 요르단의 프린스 알리 빈 알 후세인은 FIFA 집행위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 선거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후보자들은 베일에 가려있는 상태. 도전의사를 밝힌 정 회장을 비롯해 올해 초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일본축구협회 부회장 등 극히 일부만이 공개적으로 의사를 드러냈다. 정 회장은 "정몽준 명예회장이 국제축구계에서 모든 직함을 내려놓으신 이후 한국축구는 FIFA와 AFC 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개인의 명예보다 한국축구가 국제축구계에서의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방콕(태국) | 최용석 기자

## 전남, 부산 제물 삼아 6위로 점프



전남이 21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벌어진 부산과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27라운드 홈경기에서 심동운-송창호의 연속골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3점째를 넣고 13승3무11패(승점 42)를 기록한 전남은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반면 부산(4승9무14패·승점 21)은 6경기 연속 무승(2무4패)의 부진 속에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다.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홈팀 성남과 원정팀 제주가 1-1로 비겼다. 제주(11승11무5패·승점 44)는 4위를 유지했고, 성남(5승9무13패·승점 24)은 10위를 지켰다.

한편 20일 벌어진 4경기 중에선 선두 전북(15승7무5패·승점 52)이 상층부의 서울(11승9무7패·승점 42)과 0-0으로 비겼고, 2위 포항(15승5무7패·승점 50)은 3위 수원(13승8무6패·승점 47)에 1-2로 털리며 추락했다.

남정환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다저스 지구 우승 '매직넘버 5'

2년 연속 PS 진출 확정...내일부터 SF와 3연전

LA 다저스가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하는 가운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 매직넘버를 5로 줄였다.

다저스는 20일(이하 한국시간)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4-5로 승리하면서 잔여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2위를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결정지었다. 다저스는 하루 뒤인 21일 컵스전에서 총격의 7-8 역전패를 당했다. 7회초까지 7-2로 앞섰지만 7회말 등판한 JP 하월이 아리스텐디 알칸타라에게 3점홈런을 맞는 등 0.2이닝 동안 4실점하며 7-6으로 쫓겼고, 8회말에 등판한 브라이언 윌슨이 크리스 코글란에게 역전 결승 2점홈런을 허용하면서 추락을 고했다. 그러나 이날 지구 2위인 샌프란시스코가 샌디에이고에 2-3으로 지면서 다저스는 지구 우승 매직넘버를 5로 줄일 수 있었다.

양 팀은 23일부터 다저스타디움에서 3연전을 펼친다. 샌프란시스코에 3.5게임차로 앞서 있는 다저스는 23일 첫 판에 맨 해럴드를 선발투수로 내세우고, 잭 그레인키~클레이튼 커쇼를 차례로 출격시켜 지구 우승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저스로서는 3연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구 우승을 거머쥌 수 있다. 한편 류현진은 이날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가법제 캐치볼을 하며 포스트시즌 출격을 위해 서서히 준비를 시작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 득점왕·MVP 이승우 “준우승, 만족 못 한다”



U-16 축구대표팀 이승우(FC바르셀로나)가 2014 AFC U-16 챔피언십에서 득점왕(5골)과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한국은 2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결승에서 북한에 1-2로 역전패해 준우승에 만족했다.

### AFC U-16 챔피언십 최고 스타 등극

화려한 개인기 앞세워 5골·4도움 맹활약  
“내년 U-17 월드컵 다시 우승 도전” 각오  
한국의 메시? “난 이승우로 평가 받겠다”

한국 U-16(16세 이하) 대표팀이 아시아 정상 탈환에 실패했다. 한국은 20일(한국시간)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북한의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 결승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전반 33분 최재영(16·포항제철)의 헤딩골로 앞섰지만, 후반 7분과 23분 연속 실점했다. 북한에 내준 2골 모두 수비 실수가

동반돼 아쉬움이 컸다. 한국의 에이스 이승우(16·FC바르셀로나)는 결승에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화려한 개인기로 이번 대회에서만 5골·4도움을 기록해 득점왕과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다.

### ●기술(한국) VS 스피드(북한)

결승에서 격돌한 남과 북의 축구 스타일은 극명하게 달랐다. 한국은 세밀함을 앞세운 기술축구를 구사한 반면 북한은 스피드와 파워를 앞세웠다. 북한은 한국의 개인기를 의식한 듯 초반부터 거친 플레이를 펼쳤다. 이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제 페이스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전반 중반 이후 수비를 스티프로 전환한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했고, 전반 33분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최재영의 헤딩골로 기선을 잡았다. 그러나 후반 수비수 실수가 뼈아팠다. 후반 7분 최재영이 공격에 깊숙이 가담한 직후 역습을 허용해 한광성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 23분에도 수비수가 건어내려다 실수가 나오면서 북한 최성혁에게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찬스를 내주며 역전골을 허용했다.

### ●실망감 드러낸 이승우

이승우는 득점왕과 MVP를 동시에 차지했지만 표정이 좋지 못했다. 8년 만에 도전했던 한국의 AFC U-16 챔피언십 우승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상을 받

었지만 팀이 목표로 했던 우승에 실패해 아쉽다. 내년 U-17 월드컵에서 다시 우승에 도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보다 좋은 몸 상태로 대회에 임했고, 수비와 어시스트 부분에서 최진철 감독님께 많이 주문을 받았다. 수비가담과 집중력을 해소하는 방법 등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더 많이 배우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메시”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선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내 스타일이 누구와 비슷한지는 모르겠다. 그냥 ‘이승우’라는 이름으로 평가 받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방콕(태국) | 최용석 기자 yong@donga.com

트위터 @gyong11

## 북한축구, 유학과 기술에 속도와 투지 심었다

AFC U-16 챔피언십 우승...대표팀 중 6명이 유럽 유학과 국제축구학교 등 유소년 육성 탄탄...특유의 팀 컬러 감점

### ■북한축구, 왜 강인가?

북한축구가 아시아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4인천아시아게임에 참가한 남녀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승승장구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북한은 또 20일 태국 방콕에서 벌어진 2014 아시아 축구연맹(AFC) 16세 이하(U-16) 챔피언십 결승에서도 한국을 2-1로 꺾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북한축구의 상승세 비결은 무엇일까.

### ●북한축구의 산실 국제축구학교

북한 U-16 대표팀을 이끌고 AFC U-16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한 연광무 감독은 “국제축구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곳에서 기량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축구학교에서 각급 연령대의 선수들을 모아 체계적 훈련을 통해 꾸준하게 선수들을 키워내고 있다는 얘기다. 그 덕분인지 북한 U-16, U-19 대표팀은 아시아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 최근에는 어린 선수들을 유럽에 보내 조기교육도 시키고 있다. 연 감독은 “이번 U-16 대표팀에 선발된 6명의 선수가 유럽에서

축구를 배웠다. 3명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마르셀이라는 축구재단에서, 다른 3명은 이탈리아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도 한국 못지않게 유소년축구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다.

### ●북한축구의 색깔 ‘속도전·투지전·기술전’

연광무 감독은 북한축구의 색깔에 대해 묻자 “속도전, 투지전, 기술전 등을 위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팀의 경기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와 투지는 북한축구의 고유 색깔이다.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북한축구선수들은 스피드가 좋고, 엄정

한 활동량을 자랑한다. 체력적으로는 강하지 않지만 투지를 바탕으로 90분 내내 열심히 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다. U-16 대표팀은 한국과의 결승에서 2-1로 앞선 이후에는 몸싸움이 벌어지면 그라운드에서 누워 시간을 보내는 전략을 펼쳤다. 결과가 중요한 토너먼트대회의 특성상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전술이다. 북한성인대표팀도 비슷한 플레이를 한다. 페어플레이가 중시되는 축구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이 같은 전략을 펴게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방콕(태국) | 최용석 기자

## 백규정 시즌 3승...신인왕 경쟁 불 지폈다

메트라이프 KPGA 챔피언십 역전 우승  
다승 공동 선두·신인왕 랭킹 2위 맹추격

‘루키’ 백규정(19·CJ오쇼핑)의 샷이 다시 뜨거워졌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대회 메트라이프 KPGA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따냈다.

백규정은 21일 경기도 안산 아일랜드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홍란(28·삼천리도시가스)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한 뒤 첫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서 프로 데뷔 첫 승을 신고한 백규정은 6월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에 이어 시즌 3승째를 신고했다.

백규정의 우승으로 신인왕 경쟁에는 다시 불이 붙었다. 고진영(19·넵스)과 김민선(19·CJ오쇼핑)에 이어 신인왕 포인트 3위로 밀려났던 백규정은 이번 우승으로 310점을 획득

해 1630점으로 고진영(1677점)을 47점차로 추격했다. 또 다승왕 경쟁에서도 김효주(19·롯데)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승상금 1억4000만원을 추가하면서 상금랭킹은 9위에서 5위(4억5356만원)로 뛰었다. 공동 6위에 오른 허윤경(24·SBI)도 상금 4억1040만원을 돌파해 시즌 상금 4억원을 넘긴 선수는 모두 4명(김효주 장하나)으로 늘어났다.

4년 만에 우승 도전에 나선 홍란은 14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저어내 게 뼈아팠다. 벌커샷 실수로 한꺼번에 2타를 잃어 추격의 발미를 제공했다. 1타차로 쏘던 백규정은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성공시키며 승부를 연장전을 끌고 갔고, 연장에서도 3번째 샷을 홀 1.7m에 붙인 뒤 버디로 연결해 우승을 확정지었다.

한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연속 우승을 노렸던 김효주는 이날 3타를 까먹어 공동 6위(합계 6언더파 282타)에 그쳤다.

주영모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루키’ 백규정이 21일 안산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메트라이프 KPGA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시즌 3승째를 거둔 백규정은 김효주와 다승 공동선두, 신인왕 랭킹 2위로 올라섰다.

### 한국 U-19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 발표

대한축구협회는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U-19) 챔피언십에 출전할 대표팀 소집 명단을 21일 발표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의 백승호를 비롯해 김영규(알레리아), 김진(올림픽파크 리옹), 김진수(아우크스부르크), 오세준(베르더브레멘) 등 25명이다. 25일부터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진행될 1주일간의 소집훈련을 통해 대회에 나설 최종 23명의 명단을 가린다.

### 신지애, JLPGA 먼시웨어 클래식 우승

신지애(26)가 21일 일본 아이치현 신미나미 아이치 컨트리클럽(파72·6375야드)에서 열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먼시웨어 레이디스 클래식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내며 5언더파 67타를 쳐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시즌 4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나리(26)도 13언더파 203타로 2위에 올랐다.

편지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 @mkh2357